

예배 및 모임안내

2019-28호 2019년 07월 14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21	07. 28	08. 04
대 표 기 도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이예스더 자매
헌 금 위 원	황희순 집사	유미경 집사	박재기 집사
안 내 위 원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유미경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막10~16장, 눅1~8장)
2. 친교실 사용 - 식탁과 의자는 반드시 들어서 옮겨주십시오.
3. 한국 방문 - 박혜리 자매(11일), 문정현 집사(14일)
4. 나눔의 시간 - 임미수, Enno Schwas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윤석진 형제(20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헌 물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천막집회(8월 30일(금)~9월15일(주일))를 위하여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새 교우들이 모일 수 있도록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5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55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5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미자 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렘 4 : 19- 22(구 p1056) 박주은 형제
(Jeremia 4:19-22)
- 찬 양 Lobelied 한민 성가대
- 설 교 Predigt **영적 감각을 깨우세요**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52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박재기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
에게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모스 8:10)

말세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태계의 위기와 물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계 인구는 매년 약 1억 명 정도가 늘어가고 있는데, 동물과 식물은 매년 약 2만 5천
에서 5만 종류가 멸종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 부족으로 인해 지구의 4분
의 1정도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탐욕으로 인하여 도덕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것이 문둥병처럼 번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열 사람의 의인이 되어서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
님께서서는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를 맞은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다가 깰 때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두움의 일을 벗어나야 합니
다. 비록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만이라도 어둠의 일을 가까이 해
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약속 365가지